

해외 미술계 전문가, 광주 작가 작업실 찾는다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광주

미술관장·큐레이터·매체 필진에
이이남·우제길 등 6명 작업 소개

해외 미술계 주요 인사들이 광주 지역 작가 6명의 작업실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한국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세계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 작가의 작업실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23 Dive into Korean Art: Gwangju'. 로 리첸 대만 태복당대예술관 관장, 피 리 홍콩 타이쿤 컨템포러리 뮤지엄 예술 부문 대표, 텡 엔 후이 싱가포르 아트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등 해외의 주요 미술관 관장·큐레이터·매체 필진 등 총 8명이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에서 찾아갈 작업실은 한국 미디어아트의 대가로 알려진 이이남, 빛의 화가로 불리는



로 리첸



피 리



텡 엔 후이



우제길



이이남



임용현

우제길을 비롯해 강운, 김상연, 이매리, 임용현 등 총 6명 작가의 공간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총 11명의 한국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주목하고자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손을 잡았다. 광주 작

가들의 작업실 방문 이후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 첫날 프로그램은 강운, 이매리, 이이남 작가 작업실 방문이다.

‘구름 작가’로 불리는 강운 작가는 작업실 내 전시실, 유화·텍스트 작업실, 수장고를 개방하고, 자연을 통해 인간 존재의 내면을 살피고자

하는 작업세계를 설명한다. 이매리 작가는 자전적 존재와 실존의 문제에 대한 초창기 작업부터 이를 인류학적, 역사적 관점으로 확장해온 최근 작업 과정까지 작업 연대기를 소개한다. 이이남 작가는 디지털을 매개로 당대의 고전 회화를 현대적인 관점과 이슈·문화들을 접목해 재해석한 초기 작품부터 최신작까지 폭넓은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둘째 날은 김상연, 우제길 작가 작업실 및 광주시립미술관 방문으로 진행된다.

김상연 작가는 수인 판화, 흑백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보이지 않는 작가의 내면세계와 감각을 담은 흑백 작업과 환경 등 사회문제와 연결된 작업 현장을 선보인다. 우제길 작가의 작업실이자 미술관인 우제길 미술관에서는 1955년부터 현재까지 우제길 작가의 방대한 아카이브와 수장고를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 방문해 제주 4·3 특별전으로 개최되는 ‘박경훈 : 4·3 기억·투쟁, 새김과 그림’과 종진 작가 초대전 ‘김호성: 검은 먹 한 점’을 관람하며 한국 미술 전반에 대한 관심을 이어간다.

셋째 날은 임용현 작가의 작업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 일정이다.

임용현 작가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도구로써 프로젝트매핑, 인터랙티브작업, 홀로그램 영상, 라이브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영상의 제작과 작품의 실현 과정을 재현하며 작업을 소개한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사우정원’, ‘원초적 비디오 분석’ 등을 관람하고, 해외 인사와 작가들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4일 차에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최진화 기자

봄을 닮은 싱그러운 눈으로 즐겨요

김호성·유용상·이창효 초대전

‘사실적으로 봄’ 작품 60점 선봬

아트디오션갤러리 내달 1일 개막

아트디오션갤러리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극사실주의(하이퍼리얼리즘) 김호성·유용상·이창효 작가 초대전 ‘사실적으로 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극사실주의 작품 60점을 만나 볼 수 있다. 극사실주의는 사진과 같은 철저한 사실 묘사가 특징이다. 실물보다 더 섬세하고 정교한 작품들은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작가들의 감성도 묻어낸다.

김호성 작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 특정 공간에 하나의 현상을 만들고 그 현상을 카메라로 옮긴 후 인화된 사진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린다.

유리식기 안에 담겨있는 딸기 그림은 특유의 광택과 유리의 투명함이 잘 표현돼 있다. 보고만 있어도 상큼함이 느껴져 침샘을 자극한다.

작가의 작품에는 딸기뿐만 아니라 꽃 같은 아

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등장한다. 이 모티브들은 작가가 추구하는 외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비판에 활용된다.

유용상 작가는 쉽게 깨지는 와인잔과 와인을 통해 현대인의 모습과 심상을 담아낸다. 그의 작품에는 음료가 담겨있거나 비어있는 흔들리는 와인잔 또는 종이컵이 등장한다. 흔들림의 이미지 속에서는 정지된 듯 정확한 초점에 물체를 향해 극대화된 이미지가 중첩돼 시점의 융합과 복합이 한 화면 속에서 이뤄진다.

연작 ‘The chosen person(선택받은 사람)’은 군중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선택받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표현했다.

‘아름다운 구속’은 와인잔 안에 든 꽃을 통해 모순적인 인간의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창효 작가는 자두 작가로 불린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한지를 덧 바르고 그 위에 유화로 자두를 그린다.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자두에 그려진 표면의 하얀 분과 물방울은 말에서 갓 수확한 듯한 사실감을 준다.

작품에는 어린 시절 느꼈던 자두의 맛과 행복



- 1 유용상 ‘아름다운 구속’
- 2 김호성 ‘Exterior 100S-130’
- 3 이창효 ‘풍요’

한 기억, 어머니의 그리움이 담겼다.

갓 수확한 자두 마냥 하얀 분가루가 금방 묻어날 것만 같은 생생한 화면의 작품은 국내외

해외 주요 아트페어는 물론 많은 갤러리 전시를 통해 유난히 시선을 끌고 있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나라 기자

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 인재양성

광주예술중 학생 9명 대상 교육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이 미디어아트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미디어아트 예술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예술중학교부설 예술영재교육원(예술영재교육원)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퓨처랩에서 진행된다.

예술영재교육원은 지난 1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기와 면접을 거쳐 총 9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미디어아트 관련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는다.

이론과 실습에는 미디어아트 전문 강사 7명이 투입된다.

강의는 ‘미디어아트 이론 및 매체 메커니즘 이해하기’, ‘공간 속에 형성되는 미디어 조형 연습’, ‘미디어에 활용되는 음향 기술 기초’,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까지 다뤄진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에는 미디어아트 현장 탐방도 예정돼 있다. 과정 종료 후 결과물은 12월 8~17일 G.MAP 전시실에서 발표한다.

/이나라 기자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트크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조달청등록업체

01
**화장실
칸막이**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03
**벽천장용
흡음재**

TEI.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